

오프라인 유통산업이 부진한 가운데 ‘나홀로 성장’ 중인 업종이 있다. 바로 편의점이다. 편의점은 1인 가구 증가, 간편식 시장 확대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3사(이마트, 흠플러스, 롯데마트)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각각 0.1%, 1.5% 매출액이 감소했다. 반면, 편의점만 나홀로 4.1% 매출액이 늘어나며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

다. 편의점의 성장 비결은 외형 확대와 상품·서비스 차별성 확보에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편의점 역시 질적 성장을 하고 있어 파급력 또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집 앞에 잠깐 나가 생필품만 구매하던 편의점이 생활밀착형 플랫폼으로 거듭난 것이다. 메트로는 ‘편의점 시대’를 통해 편의점이 나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을 분석해봤다.

〈편집자주〉

# 카페 못잖은 분위기… 편의점의 진화 ‘나홀로 성장중’

## 편의점 시대

### ① 차별화 통했다

**세븐일레븐 ‘푸드드림’ 매장**  
매출 66.8% 높아… 올 500곳 조성

**CU, 즉석원두 ‘GET 커피’**  
매출 34.5% ↑… 연간 1억잔 돌파

**GS25 ‘카페25’**  
작년 1.3억잔 판매… 매출상승 견인

**이마트24 ‘바리스타 매장’**  
전국에 187개 매장 운영 중

편의점이 최근 들어 카페형·레스토랑 형 등 차별화 매장으로 고객의 발걸음을 유도하기에 나섰다.

세븐일레븐은 일반점포보다 2배 가량 넓고, 즉석식품, 신선식품 위주로 구성된 프리미엄 편의점 모델인 ‘푸드드림’ 매장을 강화한다.

푸드드림 매장은 일반점포보다 수익률은 6% 포인트 이상 높고, 매출은 66.8%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많은 고객 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븐일레븐은 올해 푸드드림 매장을 500곳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세븐일레븐은 ‘푸드드림’이 1인 가구 시대의 소비 특성을 반영한 미래형 편



세븐일레븐 푸드드림 내부 전경.



고객이 GET 커피를 구매하고 있다.



모델이 GS25 매장에서 신개념 마시는 푸딩음료 디저트 ‘디어 푸딩’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의점 모델로서 편의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고, 초 경쟁 시대 가맹점의 수익증대와 브랜드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석원두커피도 편의점 매출을 견인하는 요인 중 하나로 떠올랐다. 유명 카페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고급 원두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1000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소비자들의 관심비를 자극한 것.

실제로 지난해 온장고 음료의 매출은 예년과 달리 시들한 반면, 즉석원두커피의 매출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CU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주요 음료들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두유 2.2%, 꿀물 5.3%, 차음료 6.0%, 한방음료 8.5% 등 대표적인 온장고 음료의 전년 대비 매출신장률은 모

두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CU의 즉석원두커피 GET 커피의 경우는 34.5%나 전년 대비 매출이 크게 뛰었다. 아이스 커피의 매출 비중도 15%에 달했다.

GET 커피의 최근 3년간 연도별 전년 대비 매출신장률은 2017년 33.7%, 2018년 42.9%, 2019년 40.1%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고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1억 잔을 돌파했다.

이러한 즉석원두커피의 폭발적인 성장은 커피 시장에서 편의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18년 국내 커피류 소매 채널별 시장 규모를 보면, 편의점(40.8%)이 대형 할인점(22.9%), 체인슈퍼(14.4%), 개인 슈퍼(13.1%), 일반식 품점(8.8%)을 밀어내고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GS25의 카페25도 2019년 연간 1억 3000만 잔 판매를 돌파하며 GS25의 각

점포의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이마트24의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 해 커피 상품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상품군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즉석원두커피 64%, 냉장커피(컵, RTD 등) 44%, 캔커피 48%, 얼음컵에 부어 먹는 파우치 커피 41% 등 대부분의 커피 상품이 고객들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마트24는 바리스타가 있는 편의점으로 차별화를 했다. 이마트24는 지난 2018년 5월 서울 해방촌점을 시작으로 업계 최초로 바리스타가 있는 ‘바리스타 매장’을 도입해 지난해 말 187개 점까지 확대했다. 해당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선 점주가 직접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커피와 함께 디저트 카테고리 매출도

늘고 있다.

GS25가 디저트 카테고리 매출을 살펴본 결과 전년 대비 2019년 125.6%, 2018년 16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디저트 카테고리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전문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고품질의 상품을 알뜰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편의점에서 디저트를 찾는 고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인 변화가 편의점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처한 편의점 업계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상권에 맞는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2020년도 제1회 초·중·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현장접수를 시작한 17일 오후 서울 용산공고 실습장에서 수험생 등이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성장률 전망치 2.1→1.9% 하향

무디스 “코로나19 확산 악영향”  
日 0.4→0.3%, 中 5.2→5.2%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이유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 19 확산이 중국 경제 활동에 불러온 충격이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생산과 관광 산업 등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 0.2%포인트, 일본

0.1%포인트 각각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성장을 전망치는 종전의 2.1%에서 1.9%로 낮아졌다. 일본은 0.4%에서 0.3%로 낮아졌다.

무디스는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당초 5.8%로 전망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 5.2%로 크게 낮췄다.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대로 5.7%로 유지됐다. 마드리드 보궐 무디스 부사장은 “이번 시대는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며 운송, 리테일,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 임의 소비지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 의무거주 1년→2년 확대 하나

###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구제 방안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때 이 같은 청약규제 강화방안이 포함됐는데, 정책이 발표되기 전 수도권에 주소를 정하고 올해 청약을 준비 중이던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제’ 개정안 중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 규제 개정안은 이미 10일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국토부는 아직 이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검토해 왔다.

국토부의 검토 내용에는 이 규제의 유예 규정을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서울 지역 아파트의 모습.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검토 결과 일부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하면 이후 단계별 규제심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원래 개정안보다 규제를 강화한다면 재입법예고가 필요하지만, 이는 만약 하게 된다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토부가 검토 결과 기준 안대로 유예 규정 없이 개정된 규칙을 시행할 수도 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 받도록 했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김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웬만한 수도권 유망지역은 모두 포함됐다.

/정연우 기자 yw964@